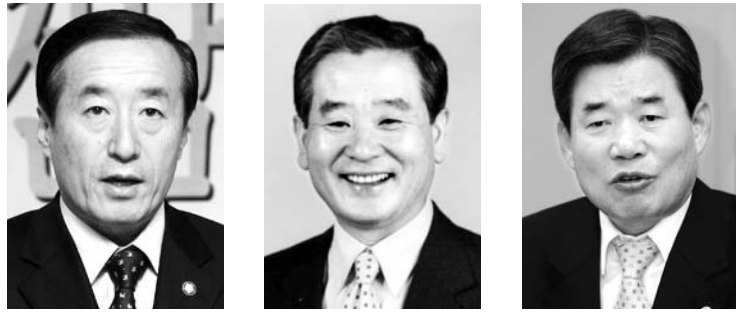


종합·해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다음달 13일 실시

광주·전남 의원들 표심 결집 될까

유선호·강봉균·김진표 3파전 혼전 구도 지역 정치권 "미래위해 힘 모으는 지혜를"



유선호 의원 강봉균 의원 김진표 의원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표심 결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유선호, 강봉균, 김진표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원내경선 판세가 혼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크 호스'로 주목받았던 유선호 의원(영암·강진·장흥)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어갈 후보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86표 가운데 19표를 갖고 있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표심이 결집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표심이 결집된다면 원내대표 경선 구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남이 지역구인 유선호 의원이 가장 큰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뿔뿔 뿔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경선 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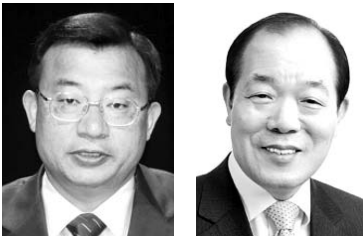
당의 원내대표 경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표심이 결집된다면 원내대표 경선 구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남이 지역구인 유선호 의원이 가장 큰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뿔뿔 뿔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경선 등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반면 민주당의 핵심 지역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결집보다는 각개약진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힘을 분산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각개약진보다는 지역 정치권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료 출신의 강봉균 의원과 민주당의 과거 주류 및 친노 그룹의 간접 지원을 받고 있는 김진표 의원에 갖가지 인연 등을 내세워 광추·전남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접촉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역 정치권이 결집된 힘을 보여줄 것인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풍암호수 육교 예산 내가 확보"

이정현-김영진 의원 서로 주장 논란

광주 풍암호수와 금당산을 연결하는 육교 예산으로 1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은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서로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광주 서구 풍암호수와 금당산 연결 육교예산 10억원과 양동시장 진입도로 예산 7억원 등 17억원의 행정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부터 문제점을 인식, 2009년에는 생태통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100억 이상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생태육교로 추진하게 됐다"며 "김중식 서구청장과 풍암동, 금동동 주민대표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수차례 현장 실사를 한 뒤 행정부 장관을 무려 5차례 만나서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이정현 의원 김영진 의원

원을 확보해 풍암저수지와 금당산 간 육교 설치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육교 설치를 위해 행정부 특별교부세 예산을 두 차례 만나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금년도 착공에 필요한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정치권에는 여러 의원이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을 자기 혼자만 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의원이 이미 약속받았다고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일이 많다"며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정치권의 관행적 다름(?)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5개구청 장애인 예산 4.6배 증가"

문상필 시의원 밝혀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 3) 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5개 구청의 장애인 복지 시책과 재정 등 28개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5개 구청의 8년간 장애인 예산은 4.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구청의 장애인 수는 지난 2003년 3만7267명에서 지난해 6만8518명으로 1.8배 증가했고,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2003년 2.68%에서 2010년 4.7%로 2%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134억4900

만원에서 621억2200만원으로 4.6배 증가했다. 반면, 광주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장·단기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서구와 남구는 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 장·단기 계획 수립 실적이 없었다. 문 위원장은 "광주시와 자치구에 사회복지기금 조제가 제정돼 있지만 용도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조례의 일부 개정이나 장애인복지 기금 조제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6월에 장애인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촌농협 조합장 보선 특별 단속

광주시선관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이 경제사업 실적 30만원을 채우지 못해 사퇴함으로써 다음달 3일 실시되는 대촌농협 조합장 보선거(광주주최 14일 1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오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대촌 농협 조합장 선거가 과연 우리가 있는 만큼 특별기동조사팀 2개 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남구 선관위 단속반과 합동으로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후보자의 금품 살포 등 기부행위와 불법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득세 감면 지방재정 피해 없을 것"

취임 1주년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인터뷰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맹 장관은 구제역 사태 당시, 설 연휴도 반납하고 링거를 맞아가며 20차례 가까이 방역 및 매몰지 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각종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는 ▲지난 1년이 마치 한 달처럼 지나간 것 같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형 사건이 터졌다. 지난해 콘파스 태풍,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고 구제역에 이어 최근에는 취득세 감면 문제 등으로 정신 없이 지냈다. -취득세 감면 문제를 계기로 지방재정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편이다. 행안부는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에 적극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카드 밖에 없다고 해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 100% 보전 약속을 받았다. 지방 재정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함, 또 지방재정에 대한 심각성을 중앙 정부에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은. ▲지방소비세가 2013년부터



구제역 초기 대응 문제

국가기관 항상 긴장할

다문화 담당 부처 많아

컨트를 타워 적극 필요

10%로 올라가게 되고,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문제들이 본격 거론될 것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전남 등 전국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110만명 정도 된다. 이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건강해진다.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만, 다문화 가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너무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정보화 마을을 거점으로 화상 상봉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 사태로 얻은 교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 기관은 항상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구제역 사태도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다행하게도 죽기 살기로 뛰어온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 사실상 구제역이 마무리됐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맡겨 부치고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역사의 평가는 당대에 금방 내려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에 대통령령 '안전 대한민국' 보고를 하고 올 1월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려다 구제역 때문에 미뤄졌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은 물론 북한인의 도발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 사업장 대부분 법정근로시간 초과

154곳중 2곳만 법정시간 지켜

4대강 살리기 사업장 대부분에서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안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안출환 의원은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중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등 2곳뿐이었다.

대부분 공구에서 근로자들은 일 평균 10~1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보(보) 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는 근로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7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이 12시간씩 맞고대하는

곳이 전체 7곳 중 6곳이었고, 모든 사업장의 하루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는 전년 경북 의성 공구에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져 인부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K 삼보주유소.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작용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식당용 종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A/S전문. 주방용품. 광주·전남, 북 전지역 출장환경.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종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침단점 062) 945-8778.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로고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쪽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